

# 이웃에 와 있는 열방, “난민”

- 미주 난민 사역의 선교적 모델 -

지용주 목사 (시라큐스 한인교회)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 조금만 읽다 보면 알게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열방을 향하고 있으며,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나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사 43:5-7).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시라큐스 한인교회는 지난 2007 년부터 교회의 밖,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인 “난민”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즈 프로젝트(The Boaz Project)입니다. 미국에 와 있는 난민을 향해,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그들이 그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2007 년 시라큐스에 소재한 난민단체를 통해 시라큐스에 온 북한 난민들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단순히 통역을 위해 만난 북한 난민들과의 만남이 난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보아즈 프로젝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룯은 모압 여인, 난민이었습니다. 소외감과 멸시감 가운데 있던 룯에게 먹을 곡식을 줌게 하고, 함께 먹을 수 있게 하고, 돌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력자가 되어주었던 보아스처럼(룯 2:12,14) 이 땅에 와 있는 난민들에게 참 소망이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난민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역을 통해 약 40 개국에서 온 1600 여명의 난민 및 이주민들을 섬겼습니다 (Afghanistan, Bhutan, Brunei, Burma,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ina, Congo, Cuba, Egypt, Ethiopia, Haiti, Honduras, Indonesia, Iraq, Kazakhstan, Kenya, Liberia, Malays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Nigeria, North Korea, Palau, Pakistan, Peru, Philippines, Puerto Rico,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Tanzania, Thailand, Turkey, and Vietnam).

## 왜 난민 선교가 필요합니까?

세계적으로 약 8,240 만의 난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2021 년 유엔난민기구 보고 기준). 이 중 2016 년에 약 85,000 명의 난민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정부의 난민 정책 제한으로 인해 이 수가 감소하다가, 최근 (FFY2021) 미국에 들어온 난민 수는 11,814 명으로 이 중 900 여명이 뉴욕 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 12 월 중순까지 약 1300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뉴욕 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뉴욕 주 시라큐스는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으로, 시라큐스 도시 인구의 약 10% 정도가 난민입니다. 시라큐스에는 수단,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버마, 콩고, 부룬디, 캄보디아, 브라자빌,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베트남, 중국, 부탄, 아르메니아,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거주 중입니다.

미국에 오는 난민의 대부분은 난민 캠프에서 십수년간을 지내다가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으로 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기 때문에 이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오면 언어장벽과 문화 충격, 사회적, 경제적 고립 때문에 또다른 의미의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난민들 대부분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10-40 원도우” 지역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이 지역은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가기 매우 어렵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는 이웃에 와 있는 이 열방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들어온 이슬람교인들이 역으로 그들의 종교를 펼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슬람교 난민의 영향으로 미국은 전체적으로 연간 약 2 만명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NBC 뉴스보도). 실제로 시라큐스 지역에서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 건물이 최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 난민들을 위한 사역, “보아즈 프로젝트 (The Boaz Project)”

지난 2007 년 여름 교회 청년들의 수고로 직접 전산실을 만들고, 2008 년부터 난민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과 이후 영어 Tutoring class 를 시작했습니다. 학기 마다 2 개의 반으로 나누어 각각 10 명씩 총 20 명의 난민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기 마다 10 주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개강하기 전에 모든 스태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첫번째 학기에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1)을 주제로, 두번째 학기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요 3:16)를 주제로 하여 교육을 준비합니다. 매 수업 때마다 먼저

이 말씀을 토대로 준비한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진 후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주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스텝 및 교사들, 섬기는 교인들은 직접 난민 학생들에게 라이드를 제공합니다. 교회로 온 난민 친구들은 수업을 통해 MS Word, PowerPoint,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 동영상 제작 등을 배우고,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1:1로 배정된 보조 교사(TA)와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직접 실습을 하며,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아 말씀의 내용과 학습 내용을 익혀갑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난민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매 학기 마지막 수업 때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한 학기 동안 만든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사진 1: 보아즈 프로젝트 컴퓨터 수업 및 영어 수업 >

매학기 개강예배, 종강예배를 통해 난민 학생들과 초청받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종강 예배 때는 예배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프로젝트 중 우수상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개근상 및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모든 민족, 백성, 방언, 열방이 함께 드리는 하늘 나라의 예배와 같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외에도 매학기마다 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Clothing Drive 및 Picnic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회 특별예배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노회의 여러 교회들도 그들이 모은 의류 등을 가져다 줍니다. 저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한 보따리씩 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 사진 2: 피크닉 >

특별히 지난 2017 년은 보아즈 프로젝트 10 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지난 10 년동안 만났던 난민 친구들을 예배에 초청하여 약 30 명의 난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이로 왔던 친구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었던 친구들이 어스세 결혼하여 그 가족과 함께 예배를 참석한 모습은 일년의 결실을 추수하는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 사진 3: 난민 친구들과 함께 드린 추수감사주일 예배 >



##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Lodi Summer Camp”

해마다 봄, 가을에는 컴퓨터와 영어 수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한편, 여름에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지난 2010 년 여름부터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로다이 스트리트(Lodi Street)로 나아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펼칩니다(Lodi Summer Camp). 지역교회를 빌려서 난민 어린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이 지역의 미국 빈민층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캠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 동안 진행되며, 캠프 시작 전 스태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캠프에서는 “글없는 책”(Wordless Book)을 기본 교재로 선정하여 5 일 동안 다섯가지 색깔(황금색, 검정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을 가지고 각각 천국, 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과 죄사함,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매일 Bible class, Art class, Game class 를 통해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수업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지난 5 일동안 배웠던 말씀을 토대로 1:1 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해마다 참석하는 150 여명의 어린이들 중 100 여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4-14 윈도우(window)” 개념이 보여주듯 4 세에서 14 세 연령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떤 연령층보다 더 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시라큐스 한인교회 뿐 아니라 미국 곳곳, 캐나다, 한국 등으로부터 스태프들이 모여 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주니어 스태프(Junior Staff)”들은 모든 훈련 과정을 함께 마치고 캠프 동안 난민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섬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높이로



< 사진 4: 2017 Lodi Summer Camp 단체사진 >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수업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Them to them”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Them to them”은 그들이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선교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대적 전략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아즈 사역을 통해 만나게 된 중국에서 온 난민 Zhou 형제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국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국제 정치 난민이 되어 미국에 들어왔고, 지난 2007년 4월 북한에서 온 난민을 만나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한국말도 못했지만 마침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중국어를 전공한 자매의 도움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에 참석했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중국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다고, 이 교회가 자신의 모 교회라고 고백하며, Zhou 형제는 “이제 내 나라의 민주화가 아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원을 통해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 지난 2012년 3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맨하탄에서 “중국인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2017년 봄에는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다며, 세례 받은 세 명의 교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감격가운데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5 & 6: 세례받은 Zhou 선교사님 교인들과 새로운 예배 처소 >

지금도 우리 교회는 부족하나마 계속 정기적으로 Zhou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Zhou 선교사님은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Zhou 선교사님을 경계하고 접촉을 꺼려하여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로 있는 지난 10년 동안 Zhou 선교사님은 뉴욕시에 있는 많은 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 중국을 떠난 난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교회 설립을 위해 일하며 예배 공간이 없어 온라인 교회의 방식으로 미국에 온 중국 젊은층과 성경 공부 그룹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하나님께서 예배의 공간을 공급해주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5 여년간 가족들을 만날 수도, 중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충성되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난민 사역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부모가,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며, 난민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삶과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 “꿈동이 도서관”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 그곳에 꿈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공간을 설립하고, 그 공간을 통해 그들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신앙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그래서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난민들이 불쌍하고 어려워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열방,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만나야 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민을 정치 사회적 관점이 아닌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교는 부름받은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루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곳, 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 개개인은 이 땅에 와 있는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방은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요청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